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대를 이어 들려주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삿 2:7)

2023 중등부 여름 수련회

일시: 7월 23일(주일)~25일(화)
주제: 여호와 살롬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장소: 충현기도원

2023 고등부 여름 수련회

일시: 7월 27일(목)~29일(토)
주제: 여호와 살롬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장소: 충현기도원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굿즈 한정 판매

일시: 7월 23일(오늘)부터 장소: 드림 카페
* 자세한 사항은 본지 7면 참조

주차안내

본당과 제2교육관 사이 외부 도로에 주차를 삼가주세요.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될 수 있습니다.)
※ 차량안내부 봉사자 모집 중 / 문의: 정재복 차장(010-3712-0165)

시편 78편의 저자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 하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도 단순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들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들려주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가 되도록 가정에서 교회학교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현의 미래 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번 여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충현교회 5대째 출석 가정 확인】

교회설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5대에 걸쳐 충현교회를 섬긴 가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은 교구담당 교역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년 8월 13일(주일)까지

2023년 제11기 중보기도 훈련생 모집

성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특권과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이론과 실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1기 중보기도 훈련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넓혀 줄 것입니다. 특히 기도에 자신이 없거나 기도가 절실한 이들을 환영합니다.
※ 중보기도훈련 수료 후 충현교회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충현교회 세례교인 누구나 (선착순 마감)
일시: 8월 5일~26일(매주 토요일, 4주간) 오전10시 ~ 12시
장소: 제1교육관 401호
신청마감: 7월 30일(주일)까지
신청방법: 사무국 또는 충현기도실 행정실
중보기도훈련 링크로 바로 신청하기 →
교재비: 5,000원
문의: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8/5(토)	10:00-10:50	기도와 중보기도 / 윤준식 목사
	11:00-11:50	구약의 기도 / 박성덕 목사
8/12(토)	10:00-10:50	영적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 박요셉 목사
	11:00-11:50	응답받는 기도와 실무1 / 홍명주 전도사
8/19(토) 현신자의날	10:00-10:40	중보기도자의 성경적 모델과 의무 / 윤준식 목사
	10:50-11:30	신약의 기도 / 권순동 목사
	11:30-13:00	제6회 현신자의 날(예배, 간증, 식탁의 교제)
8/26(토)	10:00-10:50	충현교회의 기도운동 / 윤준식 목사 충현교회 중보기도 사역의 실무2 / 홍명주 전도사
	11:00-11:50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 윤준식 목사
8/27(주)	오후 찬양예배시 / 수료 및 현신서약 예배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 2가지

(에스겔 37:16-23, 26-28)



에스겔서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포로 생활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저히 불가능할 듯 보였던 마른 뼈 골짜기 사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말랐던 뼈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인하여 모두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0-48장에 등장하는 회복된 성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영원한 성전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 골짜기 사건과 회복된 성전 사이에 위치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6-17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유다’라고 쓴 막대기는 남쪽의 유다왕국을, ‘에브라임’이라 쓴 막대기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함에는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이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뉜 원인은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분열되었던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일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복음적 통일을 위한 첫 번째 요소

통일을 위한 여러 기도 제목 중 마음에 많이 와 닿은 ‘복음으로 통일’을 묵상을 하던 가운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왕국이 하나가 됨에 ‘언약’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적 통일’이 ‘언약으로 통일’임을 뜻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6절)” 성경은 그 언약을 가리켜 ‘화평의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겔 34:25)”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화평의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여러 언약들이 이루어질 때, 화평의 언약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화평의 언약이 우리 심령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둡고 핍박이 가득한 북한 땅에도 화평의 언약은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화평의 언약이 유효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화평 언약의 핵심은 ‘내 성소가 세워지는 것 (26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 (27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하는 것 (28절)’입니다. 땅 끝 어디에든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지역에 예배를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믿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사역이 선교입니다. 화평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화평의 언약이 유효하기에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인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적 통일을 위한 두 번째 요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의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2절)” 화평의 언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한 임금’의 다스림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니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4절)” 이사야서와 예레

미야서, 그리고 소선지서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왕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생전의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을 그림자로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온 세상을 통일시키실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가리켜 ‘반드시 이루어질 평화의 화평 언약’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민족과 나라의 구별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영원한 화평의 언약에 근거하여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행 2:30)” 오순절 성령강림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구약에 대한 탁월한 이해가 돋보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자신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앉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행 2:33)”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행 2:34b)”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며, ‘내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이 노래의 절정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자 노력합니다. 지난 몽골 선교 때, 현지에서 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는, 우리교회의 동역사역자, ‘차르갈’ 선교사님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온 동네의 개들까지도 그 분을 다 기억할 정도였다고 현지의 성도들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분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겸손하심으로 낮아지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심으로, 비하에 이르기까지 하신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헛된 영광으로 자기를 채우는 허영은 버려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세상 모든 권세와 힘보다 높이셨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자,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을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될 일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화평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언약 안에 머무르되, 몸에 밴 언약을 바탕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순례의 걸음으로, 때로는 쫓대를 향한 달음질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통일과 같이 오랜 기도가 필요한 문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이 든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wo Things Needed to Achieve Unification

(Ezekiel 37:16-23, 26-28)

Rev. Kyu Sam Han

The first point among three points to be remembered in the Book of Ezekiel is the incident that the heavens were opened by the River Kebar. Almighty God revealed himself and was present even during captivity which means the state of being away from God's sovereignty. The second point was the incident of the valley full of dry bones. Dry bones spread here and there all revived and were restored by the breath of God breathed on them. The last point is the restored temple that appears in chapters 40-48. The appearance of the everlasting temple which will take the place of the fallen Jerusalem temple is glorious and beautiful. Today's text locates between the incident of the valley of dry bones and the restored temple. "As for you, son of man, take a stick for yourself and write on it: 'For Judah and for the children of Israel, his companions.' Then take another stick and write on it, 'For Joseph, the stick of Ephraim, and for all the house of Israel, his companions.' Then join them one to another for yourself into one stick, and they will become one in your hand." (vs 16-17). God let Ezekiel prepare two sticks. A stick on which 'Judah' was written meant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the other stick on which 'Ephraim' was written meant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To join the two sticks one to another into one stick includes the meaning that the two divided countries will be one country. The reason that the Israelites were taken to Babylon by captivity and the cause that the unified kingdom of Israel was divided into two was because they could not keep the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well.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the divided two countries are unified into one when God restored them.

The first element for the unification through the Gospel

While I was meditating on 'the unification through the Gospel', which moved my heart a lot, among many prayer topics for unification that I faced after returning to the mother country, I realized that the 'covenant' played a crucial role to unify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into one country. I came to know 'unification through the Gospel' means 'unification through the covenant'. "Moreover I will make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and it shall b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I will establish them and multiply them, and I will set My sanctuary in their midst forevermore." (v. 26). The Bible refers to the covenant as a covenant of peace. "I will make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and cause wild beasts to cease from the land; and they will dwell safely in the wilderness and sleep in the woods." (Eze 34:25). Even though there are forces that give us difficulties, we can be peaceful due to the covenant of peace. When the several covenants God made with us are accomplished, the covenant of peace is achieved at the same time. That's why the covenant of peace should be established first in our hearts. Even in the land of North Korea full of darkness and persecutions, the covenant of peace should be made. There is no place where the covenant of peace is not valid because God presides over the whole world. The core of the covenant of peace is 'to set My sanctuary (v 26)', 'My dwelling place will be with them (v 27)', and 'My sanctuary is among them forever (v 28)'. We should try hard for the sanctuary of God and the dwelling place of God to be established anywhere at the end of the earth. That's why the mission is the work of establishing worship service where there is no worship service. The mission is the work to establish men who believe in God where there are no men who believe in God and to try hard to lead them to go further to the place of worshipping God. Because there is the covenant of peace, we can take charge of this mission, and because the covenant of peace is valid, we should fulfill this mission. We must remember that the covenant of peace, which is the reason that the sanctuary of God should be also established in North Korea, is an eternal covenant.

The second element for the unification through the Gospel

"and I will make them one nation in the land, on the mountains of Israel;

and one king shall be king over them all; they shall no longer be two nations, nor shall they ever be divided into two kingdoms again." (v 22). Another important element except for the covenant of peace is 'one king's sovereignty'. "David My servant shall be king over them, and they shall all have one shepherd; they shall also walk in My judgments and observe My statutes, and do them." (v 24). According to the Book of Isaiah, the Book of Jeremiah, and Minor Prophets, 'David', the king who already died long time ago, means a descendant of David. King David also knew while he was alive that God established him as a shadow to prepare for the Messiah who would save the world. The person, who was a descendant of David, but existed before David, and would unify the whole world is the very Jesus Christ. This is referred to as 'the covenant of peace' surely for peace to be achieved. When Jesus restores this land, the distinction between peoples and nations disappears, and all the conflicts will be resolved by Jesus. It's because the king of kings, Jesus, will rule based on the eternal covenant of peace. "Therefore, being a prophet, and knowing that God had sworn with an oath to him that of the fruit of his body, according to the flesh, He would raise up the Christ to sit on his throne," (Ac 2:30). Peter's sermon at Pentecost shows his excellent understanding about the Old Testament. Peter says that David knew his descendant would sit on the throne where God reigns. "Therefore being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He poured out this which you now see and hear." (Ac 2:33). The incident that Jesus who was exalted by God poured out the Holy Spirit was the incident at Pentecost.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Ac 2:34b). 'The Lord' means God the Father, and 'my Lord' means the Son of God, Jesus who came as a descendant of David. The climax of this song which cited verse 1 of Psalm 110 is the fact that all the forces of the world will kneel down before Jesus.

With the heart of Jesus

When going to the mission field, I endeavor to see with the heart of Jesus, who can see the rule of God well. During the last Mongolian mission, I visited a church of a missionary, 'Jargal', who is a co-missionary of our church and has pioneered three churches in the local field. Believers in the local area expressed admiration that she worked so hard that even the dogs in the villages remembered her. I think her heart is just the heart of Jesus.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Php 2:5). It is Jesus' heart that has been lowered by humility despite being equal to God. The heart of Jesus who emptied himself to make himself nothing is the heart of Jesus, which we should embrace. We should discard the vanity which fills with false glories. "Therefore God also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ose in heaven, and of those on earth, and of those under the earth, 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p 2:9-11). God exalted Jesus who humbled himself higher than all the authorities and power of the world. This is what is happening now in the spiritual world, what has already been fulfilled, and what will be revealed completely when God will have accomplished all the works. In order to fulfill the covenant of peace which is the basis, there should be Jesus who reign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pours out the Holy Spirit. Those who live holding on to the covenant should stay within the covenant and should proceed based on the covenant accustomed to the body. They must never back down. Even more so in the case of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which needs prayers for long. When we go forward staying in the covenant, God surely fulfills.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e covenant of peace should be established firmly for all the people of God.

영역·이울의



Amazing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영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여호와 살롬'이라는 주제로 7월 15일(토)~16일(주일)까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조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살롬 캠핑놀이 활동으로 텐트치고 사진 찍고, 정글에서 곤충채집하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맛있는 바베큐 파티, 밤하늘의 별 따기, 첨벙 첨벙 신나는 물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살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영아부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하신 성경학교 너무 재밌고 알차어요!! 매번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하시니... 이튿날 오늘 백프로 너무 신나게 즐겼습니다~~ 특히 교회 앞마당 물놀이라니!! 이튿날 너무 재밌게 했어요~~
조이트 어머니 심경하

오늘도 영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채운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특히 별방이 너무너무 멋졌어요~~ 지온이도 너무 좋아해서 그 방을 얼마나 들락날락했는지 몰라요. 영아부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는 늘 최고입니다.
정지은 어머니 강지은

늘 여러 가지 컨셉으로 많은 놀이들을 준비해주셔서 사랑하는 진우와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진우 어머니 이다솜

정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성경학교였어요! 항상 아이들과 예배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지안 어머니 백수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예배실 입구에서부터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아기들도 말씀 안에서 신나는 시간 보낼 수 있었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김은찬 어머니 홍서인



쉽지 않은 체력이었지만 요즘 저희가 집에서 자주 외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덕분에인지 신기하게도 몸이 가뿐해져서 무사히(?) 저희와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천막 밑에서 오늘의 날씨와 모든 과정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선생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김지희 어머니 김소연

사실 오늘 뒷정리를 같이 못하고 가서 죄송하더라고요. 준비하신게 너무 많아서 치울 것도 어마어마 해보였는데...캠핑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박도현 어머니 권영하

영아부에서의 마지막 여름성경학교라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성경학교 시간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리하시는 시간까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비를 멈추게 하셔서 다시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김준수 어머니 진유정

곳곳에서 준비해주신 선생님들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물놀이할 때 날씨도 좋아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였답니다. 선생님들의 무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유리 어머니 안지명





2023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스케치영상→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여호와 살롬! 엄마도 아빠도 우리도 모두 살롬! 살롬!

"근데 엄마 살롬이 뭐야? 평강은 뭐야?" 5살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할지 고민하였습니 다. 그런데 성경학교의 찬양, 공과, 코너 활동, 연극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아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살롬이 필요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척척 말하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너 무너무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아이들이 행복하 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로 준비해주시는 유아부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 홍연우 어머니 이우주 -

이번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에 헬퍼로 참여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생님 들의 헌신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즐겁게 뛰어놀며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정말 소중함을 느꼈 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것처럼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롬이 되는 아이들, 부모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장주영 아버지 장성길 -

항상 아이 맡기고 예배 후 찾아가기 바빴는데, 이번 성경학교에 헬퍼로 섬기면서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수고하시며 아이들을 섬기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스스로 겸손해 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참 감사했 습니다. 우리 유아부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 조하은 어머니 강지은 -

"기드온, 양털, 죄, 회개, 하나님, 살롬" 우리 유아부 친구들에게 기드온의 풀 스토리가 이해되 지 않을지라도.. 새겨주신 단어 하나하나가 믿음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는 말씀과 코너활동, 연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호와 살롬'을 기억하게 되는 감사한 시간 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참된 살롬을 품은 선생님들의 넓은 가슴과 세심한 섬김이 유아부 친 구들을 살롬에 흠뻑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살롬이 필요해요!" 물질적 풍요와 자녀의 잘됨 이 살롬의 전부임을 착각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이 저와 우리 다음세대에게 가득하기를, 진정한 살롬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서예하 어머니 이해선 -

여호와 살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 가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순수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소망3반 주민성 교사 -

올해 처음 유아부 교사로 섬기면서 맞이하는 여름성경학교라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무척 설 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고, 그 사 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멋진 성경학교였으며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흠뻑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꼭~ 유아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 소망6반 박현수 교사 -

3번에 걸쳐 진행되었던 여호와 살롬에 대한 주제가 참 좋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살로미를 찾아라' '오감 활동', '기드온 니팔 만들기' 만들기 활동, '죄가 와르르' 신체게임 활동 등 말씀과 연계된 다양한 코너 활동에 잘 참여해줘서 감사했고 신나게 뛰어놀면서 활동한 물놀이가 행 복한 추억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 충성5반 홍은애 교사 -

유아부 꼬마 친구들이 모두 살롬을 외치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과 말씀, 공과 와 다양한 코너 활동, 특별연극과 물총놀이까지 모두 여호와 살롬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의 평강으로 세워 가는 유아부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게침없는 JOY 유치부의 새바람 여름성경학교

여호와 샬롬! 준비부터 남달랐던 JOY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9일부터 15일, 16일,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숲속 캠프장에 있는듯한 입체적인 데코와 함께 '금식 릴레이' 그리고 '21일간 여호와 샬롬 큐티'로 준비한 여름성경학교는 장마철에 계속되는 비 소식에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적당한 구

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한 여름성경학교는 반별 집중 말씀 공부, 즐거운 코스 놀이, 맛있는 뷔페 점심, 와 신나는 JOY 워터파크, 그리고 오후의 하이라이트인 인형극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시간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JOY 유치부, 충현의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JOY 유치부 아빠들의 소감문

부모로서 자라나는 아이를 보며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맞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저희 가정에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오전 프로그램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점심과 즐거운 물놀이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인 토요일 당일에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조이 워터파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잠시, 물놀이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시간에 비는 기적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의 기도와 준비로 귀한 시간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를 충현교회 유치부에 맡겨도 나중에 그 자녀가 자라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치부를 섬기고 계신다는 부감 집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던지요. 충현교회 유치부는 '사랑'입니다.

정민찬 아버지 정주용



기다리고 기대하던 JOY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당일,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강하고 많은 비에 '오늘 성경학교 워터파크 야외활동은 당연히 어렵겠지?'라는 나만의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아이들 래시가드와 타올 등은 집에 안전하게 모셔 두고 교회로 출발!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야?!' 계속 해서 내리는 비가 충현교회에 가까워질수록 마른하늘로 바뀌는 것을 보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였는데, 이후 그룹 놀이 활동, 맛있는 식사 시간 이후 JOY 워터파크, 인형극의 다양한 활동에서 단 1건의 사고없이 웃음과 기쁨만 넘쳐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내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이의 손을 꼬옥 잡고 안아주며 함께 기도하는 '자녀 축복 기도 시간'이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날씨와 환경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번 JOY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날마다 "여호와 샬롬"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유치부를 위해 날마다 헌신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이영미 전도사님과 부장님, 부감님, 과장님, 많은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

이하루 아버지 이정훈



JOY 유치부 이룸에 걸맞게 아이들과 함께 JOY 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비 예보가 있었는데, 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니 거짓말처럼 비도 피해 가서 준비한 모든 순서를 은혜 안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친 아이 없이 무사히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JOY 유치부 이윤배 교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 유치부 친구들과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해주며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물놀이를 통하여 친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이제 시작될 다른 부서의 여름성경학교 또한 귀한 시간이 되고 무사히 마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JOY 유치부 구영모 교사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굿즈 한정 판매



[텀블러 2종]



[머그컵 2종]

◆굿즈 품목◆ 판매처: 드림카페(제교육관 1층)

1. 텀블러 : 2종, 1개/20,000원 각 100개 한정판매
2. 머그컵 : 2종, 1개/10,000원 각 100개 한정판매
3. (판매예정) 대나무 독서대 : 100개 한정(가격미정)
제작완료시 광고하겠습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위한

충현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자료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역사 전시관 개관)
성도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잘 활용하겠습니다.
(준비팀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전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전시할 시 기증자 이름으로 전시합니다.)

수집자료: 교회 행사 사진, 인물 사진, 교회 실물 자료(주보, 책자, 소품 및 동영상(비디오테이프) 등)
수집기간: 7월 16일(주)~ 7월 30일(주) 까지
문의: 기획위원회 이정진 집사(010-3203-8308)/임부루 집사(010-3237-0766)

